

중동 4개국과의 정상외교 성과와 향후 과제

- 이권형 구미·유라시아실 이중동팀 연구위원
(khlee@kiep.go.kr, Tel: 044-414-1073)
- 손성현 구미·유라시아실 이중동팀 연구원
(shson@kiep.go.kr, Tel: 044-414-1266)
- 박재은 구미·유라시아실 이중동팀 연구원
(jepark@kiep.go.kr, Tel: 044-414-1165)

차 례 ●●●

1. 중동 4개국 정상외교 개요
2. 국가별 경제적 성과
3. 국가별 정치·외교적 성과
4. 향후 과제

주요 내용 ●●●

- ▶ 2015년 3월 1~9일에 이루어진 중동 4개국(쿠웨이트, 사우디아라비아, UAE 및 카타르)과의 정상외교는 중동 산유국의 포스트 오일 시대를 대비한 경제발전정책과 우리나라의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기반한 '상생형 경제협력'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찾을 수 있음.
 - 이를 통해 한·중동 경제협력이 에너지와 해외건설 부문에서 보건의료, ICT, 금융, 식품 등 다양한 부문으로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임.
- ▶ 국가별로 기존 협력분야를 더욱 강화하는 한편 원자로, 스마트그리드, 할랄식품 등 새로운 고부가가치 부문의 협력을 이끌어냈고, 공동투자협력에 대한 합의도 도출하였음.
 - 에너지 부문의 14건을 포함하여 ICT, 금융·투자, 보건의료, 농업·식품, 건설·교통, 문화 등 다양한 부문에서 총 44건의 MOU를 체결하였음.
 - 역대 최대 규모의 경제사절단이 참여하여 9억 600만 달러 규모의 수출·수주 계약이 성사되었으며, 특히 중소기업의 중동 진출 효과가 크게 나타났음.
- ▶ 이번 정상외교를 통해 경제 분야뿐만 아니라 정치·외교·안보 등 다양한 부문에서 협력의 필요성을 인식하였고, 특히 한반도 및 중동 평화정착을 위한 상호협력을 확대하고자 하였음.
 - 정상회담을 통해 북핵 및 통일 문제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고, 우리나라의 대북정책에 대한 지지를 이끌어냄.
 - 사이버 안전 및 정보보안, 방산 분야 공동 개발·투자, 기술협력 등 호혜적 협력을 확대하고자 하였음.
- ▶ 경제 분야 및 정치·외교 분야에서의 성과를 확산하기 위해서는 향후 후속조치의 내실화, 투자협력의 강화, 이슬람 국가들과의 다자간 네트워크 구축 등 정책적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다양한 분야에서 체결된 MOU가 실질적인 본계약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 마련되어야 함.
 - 고부가가치 서비스업 협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단순 교역보다 투자협력이 확대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중동 산유국의 국부 펀드와 공동 투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함.
 - 이번 중동 산유국과의 정상외교 성과를 다른 아랍 국가들로 확산하기 위해서는 다자간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함.

1. 중동 4개국 정상외교 개요

■ 2015년 3월 1~9일에 이루어진 중동 4개국(쿠웨이트, 사우디아라비아, UAE 및 카타르) 순방의 성과는 중동 산유국의 포스트 오일 시대를 대비한 경제발전정책과 우리나라의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공동으로 기반한 ‘상생형 경제협력’이라는 데 가장 큰 의미가 있음.

- 중동 산유국은 공통적으로 석유산업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경제 및 산업 다각화를 추진하기 위한 국가 비전을 설정하고 있음(표 1 참고).
- 우리나라는 2014년 초 발표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통해 창조경제 관련 산업을 육성하고 해외 진출을 가속화하여 새로운 성장동력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음.

표 1. 중동 순방 4개국의 경제발전정책 및 중점 육성 분야

방문국	경제발전정책	중점 육성 분야
쿠웨이트	쿠웨이트 국가비전 2035(Vision Kuwait 2035)	SOC, 석유화학, 금융, 보건, 교육
사우디아라비아	장기전략 2005~24 (Long Term Strategy 2005~24)	석유화학, 의료, 교육, 금융, SOC, 광업, 제조업(자동차·부품·가전·금속·포장재·건설자·태양에너지)
UAE	UAE 비전 2021(UAE Vision 2021)	재생에너지, 운송 및 물류, 교육, 보건, 과학기술, 수자원, 항공우주
카타르	카타르 국가비전 2030(Qatar National Vision 2030)	에너지, 교육, 금융, 관광, 정보통신

자료: 문화체육관광부(2015), 「‘포스트 오일’ 고민하던 중동에 ‘코리아 세일즈’ 외교 적중」, 『정책브리핑』, (3월 10일)

■ 이에 따라 이번 정상외교를 통해 우리나라와 중동 산유국 간의 경제협력 다변화를 위한 토대를 마련하고, 더 나아가 제3국으로 공동진출할 수 있는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자 하였음.

- 우리나라와 중동 산유국 간의 경제협력은 지난 1970년대부터 시작되었으나, 주로 석유 및 천연가스 수입과 현지 인프라 건설 부문에 집중되었음.

■ 이번 순방 대상국은 모두 교역 규모 기준(2014년)으로 15위 안에 드는 교역 파트너이며, 석유 및 천연가스의 수입 비중이 커서 에너지 안보면에서도 중요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 국가들임(표 2 참고).

- 사우디아라비아와 UAE는 중동지역의 수출시장에서 1위 및 2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 세계 국가를 포함해도 20위권 내에 들고 있음.
- 수입 규모가 큰 것은 이번 순방 4개국으로부터 석유 및 천연가스를 수입하기 때문인데, 이들이 2014년 기준 국내 전체 석유 수입량의 71%, 전체 천연가스 수입량의 36%를 차지하고 있음.

표 2. 중동 순방 4개국의 교역 규모(2014년)

(단위: 억 달러)

방문국	수출		수입		교역(수출+수입)	
	규모	순위	규모	순위	규모	순위
쿠웨이트	19.8	39	168.9	8	188.7	15
사우디아라비아	82.9	15	366.9	4	449.8	4
UAE	72.1	20	161.9	9	234.0	14
카타르	9.0	60	257.2	5	266.2	11

주: 순위는 전세계 대상 국가별 순위임.

자료: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 한국무역, 맞춤·분석, 국가수출입, <http://stat.kita.net/stat/cstat/peri/ctr/CtrTotalList.screen>(검색일: 2015. 3. 17).

■ 이번 중동 순방 4개국 모두에서 정상회담과 비즈니스 포럼이 개최되어 ICT, 보건의료 등 다양한 분야에서 44건의 MOU가 체결되었으며, 총 9억 600만 달러의 상담 및 수출 계약이 추진되었음(표 3, 표 4 참고).

- 이번 순방을 통해 한·중동 협력의 외연을 에너지·건설 부문 중심에서 보건의료, 금융, ICT, 농업·식품, 문화 등 신산업·고부가가치 분야로 확대하였음.
- 전통적 협력 분야인 에너지·건설 부문도 원유 수입 및 단순도급사업 수주에서 벗어나 신재생에너지 기술협력 및 투자개발사업 수주로 고도화되었음.
- 중동 순방 경제사절단에 참가한 기업은 115개로 역대 정상외교 중 최대 규모이며, 92.2%에 달하는 106개 기업이 중소 및 중견 기업임.
- 또한 비즈니스 상담회를 통해 쿠웨이트의 BOPP 필름 제조공장 설립 및 운영, 카타르의 건강검진센터 설립 등에 대한 합의 및 MOU 체결도 이루어져 수출과 함께 우리나라 기업의 현지 진출 기회도 주어졌음.¹⁾

표 3. 분야별 MOU 체결 현황

(단위: 건)

에너지	보건의료	금융·투자	IT·창조경제	건설·교통	농업·식품	문화기타	계
14	5	8	9	3	2	3	44

자료: 관계부처 합동(2015), 「중동 순방 성과 이행 및 확산 방안」, 제7차 무역투자진흥회의. (3월 19일)

표 4. 비즈니스 상담 및 계약 실적

	쿠웨이트	사우디아라비아	UAE	카타르	계
우리 참여기업(개)	28	22	42	23	115
상대국 바이어(개)	92	64	62	42	260
계약(건)	13	11	12	8	44
계약 추진액(백만 달러)	132	400	274	100	906

자료: 관계부처 합동(2015), 「중동 순방 성과 이행 및 확산 방안」, 제7차 무역투자진흥회의. (3월 19일)

1) KOTRA(2015), 「중동순방 경제사절단 ‘성과 풍성」, 보도자료. (3월 9일)

표 5. 중동 순방 주요 일정

방문국	방문일	주요 일정
쿠웨이트	2015. 3. 1 ~ 3	- 사바 알 아흐메드 알 자베르 알 사바 국왕과의 정상회담 - 알 가님 국회의장 및 자베르 총리 접견 - 쿠웨이트 자베르 코즈웨이 교량현장 방문 - 한·쿠웨이트 비즈니스 포럼 참석 - 쿠웨이트 동포대표 접견
사우디아라비아	2015. 3. 3 ~ 4	- 살만 빈 압둘 아지즈 알 사우드 국왕과의 정상회담 - 비즈니스 포럼 참석 - 아마니 사우디 원자력재생에너지원장 접견 - 알 왈리드 킹덤홀딩회사 회장 접견 - 리야드 근교 마스크 요새 방문 - 사우디아라비아 동포 간담회 참석
UAE	2015. 3. 4 ~ 6	- 모하메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왕세제와의 정상회담 - 한·UAE 비즈니스 포럼 참석 - UAE 측 청년대사 프로그램 참가자 격려 - 그랜드 모스크 방문 - 청해·아크 부대 장병 격려 - UAE 동포 오찬간담회 참석 - UAE 진출 한인 의료진 격려
카타르	2015. 3. 6 ~ 8	- 셰이크 타미ม 빈 하마드 알 타니 국왕과의 정상회담 - 비즈니스 포럼 참석 - 한·카타르 문화교류의 밤 참석 - 중동진출 확산을 위한 경제사절단 간담회 참석

자료: 청와대, 청와대 뉴스, <http://www1.president.go.kr/news/newsList.php>(검색일: 2015. 3. 17).

2. 국가별 경제적 성과

가. 쿠웨이트

■ (MOU 체결 및 공동투자 확대) 쿠웨이트에서의 가장 큰 성과는 MOU 체결 분야가 기술집약형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다변화되었고, 양국 경제협력이 투자 분야로 확대되었다는 점임.

- 양국이 체결한 MOU 내용을 살펴보면 보건의료, 교통, 스마트그리드(smart grid), 건물 에너지 효율 R&D 등 첨단기술 분야 중심으로 경제협력 분야가 확대되었음(표 6 참고).
- 쿠웨이트 현지 BOPP 필름 합작공장 설립 사업은 우리나라의 기술력과 쿠웨이트의 자본력이 결합된 모범사례로, 그동안 교역에 집중되었던 양국 경제협력이 투자로 확대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됨.
 - o 2014년 양국간 교역 규모는 189억 달러인 반면 누적투자 규모는 6,000만 달러에 그침.²⁾

2) 한국무역협회, 한국무역 DB, <http://stat.kita.net/stat/kts/ctr/CtrTotalImpExpList.screen#>(검색일: 2015. 3. 5); 박주성(2015. 3. 2), 「차대통령, 쿠웨이트 경제성과 초점은...381억 달러 수주 지원」, 『뉴시스』.

표 6. 쿠웨이트 방문시 체결 MOU 현황

MOU	체결 기관	기대효과
교통협력	국토교통부(한) 교통통신부(쿠)	- 쿠웨이트 메트로, GCC 통합철도 프로젝트 등 총 238억 달러의 교통인프라 프로젝트 수주 기대
보건의료 협력	보건복지부(한) 보건부(쿠)	- 환자 송출, 의료진 연수, 병원 건설·운영 등 본격적인 보건의료 협력 기대
스마트그리드 협력	한국전력공사(한) 쿠웨이트과학원(쿠)	- 한국형 에너지 자립섬 모델 활용 - 쿠웨이트 도서·오지 지역 에너지 자립마을 사업 추진 - 스마트그리드 등 에너지 신산업 수출제기 마련
건물 에너지효율 R&D	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한) 쿠웨이트과학원(쿠)	- 한국형 에너지효율 시험인증 시험소 구축
BOPP 필름 현지 합작공장 설립	한-GCC경제협력펀드(한) 쿠웨이트 산업은행(쿠)	- 1억 500만 달러 규모의 공동투자
유전 개발기술 협력	한국석유공사(한) 쿠웨이트석유공사(쿠)	- 석유탐사 등 R&D 협력 확대로 유전 생산성 제고
프로젝트 금융조달 협력	한국무역보험공사(한) 쿠웨이트석유공사(쿠)	- 20억 달러 규모의 중장기 수출보험 지원
신도시 개발협력 합의의사록	토지주택공사(한) 쿠웨이트 주거복지청(쿠)	- 주택공급 계획에 한국기업의 참여 계기 마련 (2020년까지 17만 5,000호 신설, 사업비 50억 달러 추산)
SK-PIC 간 포괄적 투자협력	SK가스(한) 쿠웨이트 국영 석유화학기업(쿠)	- 800억 달러 규모의 투자유치 기대

자료: 청와대, 「쿠웨이트 방문 주요경제 성과와 의미」, <http://www1.president.go.kr/news/newsList.php?srh%5Bviewmode%5D=detail&srh%5Bseq%5D=9544>(검색일: 2015. 3. 5); 문화체육관광부(2015), 「『포스트 오일』 고민하던 중동에 '코리아 세일즈' 외교 적중」, 『정책브리핑』, (3월 10일)

■ (경제적 효과) 쿠웨이트 정부가 추진하는 교통·인프라, 신도시 개발 등의 메가 프로젝트에서 최대 381억 달러를 수주할 것으로 기대됨.

- 수주가 기대되는 사업 및 사업 규모는 신규 정유공장 사업(New Refinery Plant) 78억 달러, GCC 통합철도 프로젝트 18억 달러, 쿠웨이트 지하철 건설 220억 달러, 수처리시설 15억 달러, 신도시 주택 건설 50억 달러 등임.

■ (보건의료) 한국과 쿠웨이트 보건부가 체결한 보건의료 협력 MOU가 성공적으로 이행될 경우 환자 송출 및 의료진 연수, 병원 건설·운영 등 본격적인 보건의료 협력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됨.

- 양국 보건부가 체결한 이번 MOU를 바탕으로 양국간 의료진 연수가 활성화되고 쿠웨이트 국비 환자의 송출도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
- 쿠웨이트는 연간 약 2,500~3,000명의 환자를 해외로 송출하는 데 약 5억 달러의 예산을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한국을 방문한 쿠웨이트 환자는 2011~13년 기간 67명, 46명, 79명으로 증가하였음.³⁾

3) 한국보건산업진흥원(2014), 「2013 외국인환자 통계」, p. 103; 청와대, 「대통령, '사바' 쿠웨이트 국왕과 정상회담 결과」, http://www1.president.go.kr/news/newsList.php?srh%5Bpage%5D=5&srh%5Bview_mode%5D=detail&srh%5Bseq%5D=9541 (검색일: 2015. 3. 5).

■ (에너지) 양국은 원유 수급관계 중심이었던 에너지 협력을 스마트그리드, 에너지효율 평가 등으로 확대하였으며, 관련 기술 수출을 통해 기존의 원유 수입 일변도에서 쌍방향 협력관계로 전환하였음.

- 쿠웨이트는 빠른 인구증가 및 경제성장으로 인해 1인당 전력소비량이 세계 4위이나, 전력설비 이용률은 44%에 그쳐 전력수급 불균형과 이에 따른 전력난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어왔음.⁴⁾
- 한국전력공사는 쿠웨이트 스마트시티 구축사업에 송·배전망 지능화 등 한국의 스마트그리드 기술과 운영 경험을 전수하여 에너지효율을 향상시키고자 함.
- 또한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은 쿠웨이트의 사막형 기후조건에 적합한 태양광 및 제로에너지하우스 건설재료 개발을 통해 한국의 신재생에너지 기술력을 알리고, 건물에너지효율 성능평가 인프라를 구축하여 향후 중동지역에 한국형 시험인증시스템 및 관련 기술의 수출을 촉진하고자 함.

■ (ICT) 쿠웨이트는 ICT 공무원 및 전문가 교육지원사업 등에 협력 관계 재개를 요청하였음.

- 2007년 우리나라 정보통신부와 쿠웨이트 중앙정보기술국은 전자정부 구축 및 정보화 사업 등에서 협력하는 MOU를 체결하고, 컨설팅 4회 제공 및 IT 협력위원회 2회 개최 등의 협력이 이루어졌으나, 2011년 이후 중단되었음.⁵⁾
- 우리나라는 세계 전자정부 발전 순위 1위로,⁶⁾ 쿠웨이트가 요청한 ICT 공무원 및 전문가 교육지원사업 등에서 협력이 재개될 가능성이 있음.

■ (금융) 한국-GCC 경제협력펀드(KGF: Korea-GCC Cooperation Fund)와 쿠웨이트 산업은행의 합작공장 설립은 한국의 기술력과 쿠웨이트의 자금력이 결합된 모범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됨.

- 양 기관은 1억 500만 달러를 투자하여 쿠웨이트 현지에 식품포장, 테이프, 건부자재 등에 사용되는 BOPP(Biaxially Oriented Polypropylene) 필름을 생산하는 합작공장 설립에 협력하기로 합의하였음.
- KGF는 GCC 지역 진출 기업에 투자하는 국내 최초의 사모펀드로 이번 사례는 KGF 최초의 투자 계약임.⁷⁾

나. 사우디아라비아

■ (MOU 및 계약 체결) 양국 정상은 석유 수출입, 건설에 치우친 경제관계에서 탈피하여 혁신과 창조경제에 기반을 둔 경제협력 방향을 제시하였음.

4) EIA, "Kuwait - Analysis," <http://www.eia.gov/countries/cab.cfm?fips=ku>(검색일: 2015. 3. 5).

5) 행정안전부(2010. 2. 24), 「세계1위 전자정부, 중동시장 본격 진출」, 보도자료.

6) UN(2012), "E-Government Survey 2012," p. 23, p. 28.

7) KGF는 한국수출입은행 등이 출자하고 KB인베스트먼트 등이 운용함.

- 이번 정상회담에서 한국형 스마트 원자로, 태양광 등 미래에너지 분야와 보건의료, 교육 등 서비스 산업 분야의 협력 확대 등 경제협력 다각화에 대한 비전이 제시되었음.
- 우리나라 민간 기업과 사우디아라비아의 정부기관, 민간 기업 간 다양한 종류의 MOU 및 계약이 체결됨에 따라 순방 이후 산업협력 확대에 대한 후속 사업 진행이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됨(표 7 참고).
- ‘한·사우디 비즈니스 파트너십’ 행사를 통해 1억 7,650만 달러의 수출 상담이 있었고, 실질적으로 1,750만 달러 수출 계약이 성사되었음.⁸⁾

표 7. 사우디아라비아 방문시 체결 MOU 현황

MOU	체결 기관	기대효과
해운 협정	외교부(한) 교통부(사)	- 사우디 기항 한국 선박의 안정적 운항 보장, 협정 체결 당사국 영·근해 해난사고 발생 시 신속한 구조 가능
SMART 공동파트너십 및 인력양성	미래부(한) 사우디 킹 압둘라 원자력· 재생에너지원(사)	- 우리 자체기술로 개발한 ‘SMART 원전’을 최초로 건설해 상업화할 수 있는 계기 마련
창조경제협력 프레임워크	미래부(한) 사우디 과학기술원(사)	- 창조경제혁신센터와 연계한 참여 기업의 수출 확대에 긍정적인 효과
포스코-PIF 투자협력	포스코(한) PIF(사)	- 포스코건설 지분 매각, 사우디 건설시장 진출
발전수주 금융지원	수출입은행(한) 사우디전력공사(사)	- 사우디전력공사 프로젝트에 우리나라 기업 참여 시 30억 달러 한도 금융지원
공동투자협력	한국투자공사(한) KHC(사)	- 사우디아라비아의 자본과 한국의 기술력 결합 투자모델 활성화
특화 제약단지 조성	중외BC월드(한) SPC(사)	- 2억 달러 규모의 제약단지 조성 프로젝트 수주 기대
여성암센터건립 협력협약	연대세브란스병원(한) 사우디IBV(사)	- 우리 의료기술 및 시스템 컨설팅 제공
발전기술 협력	두산중공업(한) 사우디 전력청(사)	- 사우디 발전소 및 해수 담수 프로젝트 참여 가능성 제고
해수담수 공동기술 연구	두산중공업(한) 사우디 해수담수청(사)	
창조경제 혁신센터 협력	SK텔레콤(한) 사우디 텔레콤(사)	
기상협력	기상청(한) 기상환경청(사)	- 양국간 기상분야 기술개발, 인력 교류 등 협력
프로젝트 금융지원	무역보험공사(한) 이슬람 수출신용투자보험공사(사)	- 우리 기업의 사우디 발주 프로젝트 참여 가능성 제고
전력 분야 포괄적 협력	한국전력공사(한) 사우디 전력청(사)	
원전 건설사공 및 기자재 협력	현대건설(한) MESMA Partners Contracting Co. Ltd.(사)	

자료: 문화체육관광부(2015), 「‘포스트 오일’ 고민하던 중동에 ‘코리아 세일즈’ 외교 적중」, 『정책브리핑』, (3월 10일)

8) KOTRA(2015), 「사우디 바이어, 우리 중소기업 제품에 ‘환호’」, 보도자료. (3월 5일)

■ (창조경제) 양국은 창조경제의 구체적인 이행방안 중 하나로 창조경제 혁신센터 설립을 위해 협력하기로 하였으며, 이를 통해 다양한 신사업 분야에 대한 진출이 예상됨.

- 우리나라 미래부와 사우디아라비아 과학기술원 간의 MOU 체결 이후에 양국의 통신기업은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사우디아라비아 적용 및 다양한 신사업 분야 비즈니스 기회 발굴에 합의한 바 있음.
- 사우디아라비아 내 창조경제혁신센터 설립은 우리나라가 주도하고 있는 창조경제를 해외에 수출한 첫 번째 시도로 평가할 수 있음.
- 이번 MOU 체결을 통해 협력이 본격화된다면 스마트 시티, 스마트 러닝, IoT(Internet of Things)와 같은 분야로 양국의 협력 범위가 확대되고, 사우디아라비아 판 창조경제 형태인 ‘민-관-기업 협력 모델’도 제시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⁹⁾

■ (중소형 원자로 수출) 우리나라와 사우디아라비아의 중소형 원자로 공동 상용화 추진 및 원자력 관련 인력 양성에 대한 협력 강화가 예상됨.

- 우리나라 미래부와 사우디아라비아 킹 압둘라 원자력·재생에너지원(KA.CARE: King Abdullah City for Atomic and Renewable Energy)은 10만kW 급 한국형 스마트 원자로 2기 이상을 건설하는 데 협력하기로 하였으며, 계획대로 추진될 경우 20억 달러 이상을 수주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 이와 함께 MOU 내용에 포함된 현지 대학의 원자력학과 개설 지원 및 공동 인력양성센터 설립이 구체화된다면 양국의 청년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¹⁰⁾
- 이번 MOU 체결은 2011년부터 우리나라 원자력연구원과 사우디아라비아의 킹 압둘라 원자력·재생에너지원 간의 지속적인 협력에 의해 이루어진 성과라고 할 수 있음.

■ (보건의료) 양국 장관회담을 통해 사우디아라비아 의료기관 위탁운영, 한국의 의료제도 관련 기술이전 등 다양한 협력 확대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음.

- 양국 보건부 장관은 서울대병원이 UAE의 라스 알카이마에 진출한 모델을 바탕으로 사우디아라비아 내의 주요 병원에 대한 위탁운영 시스템을 적용할 수 있는 방안과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및 심사평가 제도, 병원정보 시스템 등에 대한 기술이전 등 다양한 보건의료 분야의 협력방안을 모색하였음.
- 특히 사우디아라비아에 건강검진센터 및 여성 암센터를 설립하여 위탁 운영하는 협력 협정(Cooperative Agreement)이 체결됨으로써 2012년에 이루어진 한·사우디아라비아 보건부 협력이 더욱 구체화되었음.¹¹⁾

9) SK텔레콤(2015), 「SK텔레콤-사우디텔레콤, ‘SK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 모델 적용 및 신성장 사업 분야 상호협력 강화’ 위한 MOU 체결」, 보도자료 (3월 5일)

10) 한국원자력연구원(2015), 「중소형 원자로 SMART, 해외 수출길 열리다」, 보도자료 (3월 5일)

11) 보건복지부(2015), 「한국 보건의료, 제약 및 의료기관 사우디 진출 합의」, 보도자료 (3월 4일)

■ (자본 유치 및 금융 협력) 양국 금융기관 및 기업 간 MOU 체결을 통해 우리나라와 사우디아라비아의 공동 투자 및 금융 분야 협력 확대에 합의하였음.

- 양국 정상회담 이후 한국투자공사와 사우디아라비아 최대 투자기업 중 하나인 킹덤 홀딩스는 MOU를 체결하고 사우디아라비아 자본을 우리나라 투자에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음.
- 한국수출입은행과 사우디전력공사(SEC)는 SEC 발주 프로젝트에 우리나라 기업이 참여하면 최대 30억 달러까지 지원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MOU를 체결하였음. 향후 금융제공 기본협정 추진을 통해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예상됨.
- 우리나라의 포스코는 사우디아라비아 국부펀드인 PIF와 전략적 제휴를 통해 포스코 건설 지분 매입, 자동차 생산공장 설립 등에 대한 포괄적 협력관계 구축에 합의하였음.

다. UAE

■ (경제협력 고도화) 이번 순방을 계기로 한·UAE 경제협력이 기존의 건설·플랜트 등 하드웨어 분야에서 에너지 기술 개발, 보건의료, 할랄식품 등 소프트웨어 분야로 다변화되었음(표 8 참고).

- 특히 원전 건설 중심에서 원전 운영 및 유지 등 서비스 분야로, 에너지 수입에서 에너지 신산업 분야로 협력이 고도화되었음.
- 제3국 공동진출은 한국의 인적자원·기술력과 UAE의 에너지자원·자금력을 결합하여 전 세계 시장에 대한 공동진출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큼.

표 8. UAE 방문 시 체결 MOU 현황

MOU	체결 기관	기대효과
할랄식품 협력	농림축산식품부(한) 표준측량청(U)	- 이슬람 국가로의 외식기업 진출 확대 - 한국 방문 무슬림 관광객 유치 활성화
농업 협력	농림축산식품부(한) 환경수자원부(U)	- UAE의 농업발전에 기여 - UAE의 자본과 한국의 선진 농업기술을 결합하여 중동·북아프리카 진출 기회 마련
주UAE 한국문화원 설립	외교부(한) 문화·청소년·사회개발부(U)	- GCC 지역 최초 한국문화원 설립 - 중동 지역 내 한국문화 소개활동 강화기반 마련 및 양국 협력 증진
제3국 공동진출	산업통상자원부(한) 국제개발협력부(U)	- 제3국 신재생에너지, 선박수리 조선소, 항만개발, 양식장, 기타 인프라 부문 공동진출
제3국 원전사업 공동진출	산업통상자원부(한) 아부다비행정청(U)	- 중동·아프리카 등 해외 원전 입찰에 공동 대응
세관상호지원협정	관세청(한) 연방관세청(U)	- 원전 건설 기자재 및 보건·의료 장비의 신속한 통관 - 자동차·무선통신기기 수출 확대 기반 마련
협조융자 협력	대외경제협력기금(한) 아부다비개발기금(U)	- 양국 공동 ODA 제공으로 제3국 공동진출

표 8. 계속

MOU	체결 기관	기대효과
두바이 검진센터 운영에 관한 협력 협약	서울성모병원(한) VPS(U)	- 칼리파병원에 이은 한국형 의료시스템 수출 활성화
한-샤르자 보건의료 협력 약정	보건복지부(한) 샤르자 보건청(U)	- 샤르자 대학병원 내 소아암센터 구축 및 운영 지원
유전개발기술 협력	한국석유공사 및 지질자원연구원(한) 아부다비 국영석유공사(U)	- 공동연구를 통해 한국이 참여 중인 UAE 3개 광구 사업의 회수율 향상
측정표준 협력	표준과학연구원(한) 표준측량연구소(U)	- 측정표준 시스템 및 계측기기 등 수출 기대
국제공동연구협약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한) 아부다비석유공사(U)	- 석유·가스 관련 R&D 과제 추진
신재생에너지 공동연구 및 인력교류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한) 마르다르 과기대(U)	- 글로벌 신재생에너지 소재 연구 선도 및 원천기술 확보
코딩교육솔루션 수출	SK텔레콤(한) UAE AT LAB(U)	- 2015년 상반기 중 100만 달러 규모의 교육용 스마트 로봇 수출 - UAE 초·중·고 코딩스쿨 시범학교 운영

자료: 청와대, 「대통령, UAE 모하메드 왕세제와 정상회담 결과」, <http://www1.president.go.kr/news/newsList.php?srh%5Bviewmode%5D=detail&srh%5Bseq%5D=9706>(검색일: 2015. 3. 6); 청와대, 「대통령, 한-UAE 비즈니스 포럼 참석」, http://www1.president.go.kr/news/newsList.php?srh%5Bview_mode%5D=detail&srh%5Bseq%5D=9707(검색일: 2015. 3. 6).

■ (제3국 공동진출) 우리나라와 UAE는 제3국의 원전뿐만 아니라 신재생에너지, 선박수리 조선소, 항만개발, 양식장, 기타 인프라 부문에도 공동진출하기로 합의하였음.

- 우리나라의 해외원전 건설 경험 및 기술력, UAE의 역내 네트워킹 능력, 높은 국가신용도 및 자금력이 결합 되면 해외 원전시장에서의 경쟁력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 우리나라와 UAE는 2009년 바라카(Baraka) 원전 수주를 계기로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형성하고, UAE와 제 3국 원전 공동진출에 대한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이번 MOU를 체결하게 되었음.
- 또한 우리나라가 기술력을 확보한 신재생에너지, 선박수리 조선소, 항만개발 부문에 UAE의 자금력을 결합 하여 중동·아프리카, 동남아 등지에 공동진출을 추진할 예정임.
- 실제로 양국은 이집트의 선박수리 조선소, 항만개발, 태양광, 양식장 등을 대상으로 공동진출을 협의해왔으며, 해당 사업을 성공적으로 착수시켜 공동진출 모범사례를 마련하고자 함.¹²⁾

■ (보건의료) 서울성모병원과 아부다비 VPS 그룹이 공동 개원할 예정인 아부다비 서울성모병원 건강검진센터가 양국 보건의료 협력의 성공모델이 될 전망이다.

- 2011~14년 기간 UAE 정부가 한국으로 송출한 국비 환자는 매년 1명, 89명, 351명, 806명으로 증가하였으며, 같은 기간 진료 수입은 560만 원, 36억 원, 210억 원, 350억여 원으로 급증하였음.¹³⁾

12) 산업통상자원부(2015. 3. 5), 「이집트 등 제3국 공동진출을 위해 한국과 UAE가 뭉쳤다」, 보도참고자료.

13) 보건복지부(2015. 3. 9), 「한-UAE 보건의료협력 강화로 성과 지속창출」, 보도자료.

- 2013년 기준 UAE 환자의 1인당 평균 진료비는 1,771만 원으로 외국인 환자 1인당 평균 진료비인 186만 원의 약 9.5배에 달하며,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 환자 중 가장 많은 비용을 지출함.¹⁴⁾
- 아부다비 서울성모병원 건강검진센터는 두바이 우리들병원(2011년 4월), 두바이 보바스병원 재활센터(2012년 8월), 서울대학교병원(2014년 8월)에 이어 국내 의료기관이 UAE에 진출한 4번째 사례로, 역내 보건의료 수요를 흡수할 것으로 기대됨.
- 우리나라는 보건의료 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해 의료진의 파견이 수반되어야 함을 강조하며, UAE에 한국 의사 및 간호사 면허를 최상 등급으로 인정해줄 것을 촉구하였음.

■ (문화 및 할랄식품) 양국은 농업, 할랄식품, 문화 등 새로운 부문에 대한 협력을 통해 양국 경제관계를 다변화하고자 함.

- 우리나라와 UAE는 할랄식품 인증체계 공동 구축, 양국 식문화에 맞는 메뉴 공동개발을 통해 전 세계 식품 산업을 선도하고자 함.
- o 할랄(halal)은 이슬람 율법인 샤리아에 따라 무슬림에게 허용된 것을 의미하며, 하람(haram)은 금지된 것으로 돼지고기, 주류 등이 대표적임.
- 또한 GCC 지역 최초 한국문화원이 될 주UAE 한국문화원은 향후 역내 한류 소개 활동의 거점으로서 경제협력뿐만 아니라 ‘마음과 마음을 잇는(heart to heart)’ 문화협력을 통해 동반자관계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됨.¹⁵⁾

■ (관세) 세관상호지원협정 체결로 우리나라의 중동지역 교역대상국 2위인 UAE와의 수출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 세관상호지원협정 체결로 바라카 원전 건설 기자재 및 보건의료 장비의 신속한 통관이 가능해질 전망이며, 우리나라의 대UAE 주력 수출품인 자동차와 무선통신기기의 수출도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됨.

■ (에너지) 한·UAE 석유공사 간 체결된 유전개발 기술협력을 통해 양국이 공동개발 중인 3개 유전의 생산성 향상과 사업성 제고에 기여하고, 상호 호혜적인 에너지 협력으로 발전·심화되는 토대가 될 전망이다.

라. 카타르

■ (기존 협력 분야 공고화 및 새로운 협력 분야 확대)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카타르와 에너지, 건설 분야를 중심으로 경제협력 관계를 다져왔으나, 이번 순방을 통해 신성장동력 분야로 협력을 확대하기로 하였음.

14) 한국보건산업진흥원(2014), 「2013 외국인환자 통계」, p. 28, p. 92.

15) 중동지역 최초의 한국문화원은 2014년에 개원한 주이집트 한국문화원임.

- 2014년 11월 4~5일 타밈 국왕(H.H. Sheikh Tamim bin Hamad Al Thani)의 방한 기간에 이루어진 우리나라 국민의 카타르 30일 무사증 입국조치로 우리나라 인력의 카타르 진출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를 계기로 앞으로 인력교류를 더욱 촉진하기로 하였음.¹⁶⁾

■ (양자간 투자협력) 양국 정상은 2015년 2월 도하에서 열린 투자 라운드 테이블의 성과를 성공적으로 평가하며 이에 대한 실질적인 후속조치를 논의하였음.

- 특히 우리가 제시한 48개 주요 투자 분야에 대한 구체적인 협력방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카타르 투자청(QIA: Qatar Investment Authority) 등과 협의 중에 있음.¹⁷⁾

■ (에너지) 한·원자력 인력양성 및 연구개발 협력 MOU를 통해 UAE, 사우디아라비아에 이은 새로운 원자력 에너지 협력을 확대하기로 하였고, 동북아 오일허브 사업 및 스마트 그리드에 대한 협력도 지속해나가기로 하였음(표 9 참고).

-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 등의 아시아 에너지 수요가 늘어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주요 천연가스 수출국인 카타르와 우리나라의 동북아 오일허브 사업의 필요성 또한 증가하고 있음.
- 급증하는 에너지 소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스마트 그리드와 같은 유망 산업 분야에 대한 공동 육성의 필요성도 확인하였음.

■ (건설·플랜트) 카타르는 2022년 월드컵 개최 예정지로 향후 다양한 건설 프로젝트가 진행될 예정이며, 이에 대한 한국 기업의 참여 기회 확대에 대한 협력 의지가 확인되었음.

- 우리나라는 2002년 월드컵 개최 경험과 뛰어난 건설 시공능력을 강점으로 카타르 월드컵 관련 인프라 프로젝트 건설에 참여 기회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음.
- 타밈 국왕도 우리나라 건설기업의 높은 기술력과 한국민의 성실성에 대해 인정하고 입찰 시 배려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모색하겠다고 밝혔음.

■ (보건·의료) 타밈 국왕은 늘어나고 있는 카타르 환자의 해외 송출에 따른 재정지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진 연수와 같은 우수 의료인 양성 프로그램에 대한 계약 성사 의지를 보임.

- 카타르는 자국민 환자 해외 송출에 연간 1억 5,000만 달러의 재정을 지출하고 있으며, 타밈 국왕 또한 자국 의료인 양성 프로그램에 높은 관심을 표명하며 우리나라와의 협력을 희망하였음.¹⁸⁾

16) 외교부(2014), 「카타르 방문시 30일간 무사증입국 가능」, 보도자료 (11월 25일)

17) 정윤섭, 박성민(2015), 「朴대통령, 32조원 규모 카타르월드컵 인프라 수주지원」, 『연합뉴스』. (3월 8일)

18) 청와대(2015), 「대통령, 타밈 국왕과 정상회담」, 『청와대 뉴스』. (3월 8일)

■ 비즈니스 포럼을 통해 우리나라와 카타르 간 인프라 건설, 보건의료 등을 중심으로 협력 분야의 다변화에 대한 결실이 있었음.

- 특히 비즈니스 상담회를 통해 8건의 계약에 950만 달러의 수출 및 프로젝트 협의가 진행되었음.¹⁹⁾

표 9. 카타르 방문시 체결 MOU 현황

MOU	체결 기관	기대효과
원자력 인력양성 및 연구개발 협력	미래창조과학부(한) 에너지산업부(카)	- 양국간 원자력 분야에서 실질 협력 및 전문인력 양성에 대한 기대
산업기술협력 LOI	산업기술진흥원(한) 과학기술단지(카)	- IT, 신재생, 녹색기술 등 R&D 분야 중동시장 본격 진출 기대
과학기술 연구개발 협력 LOI	한국연구재단(한) 카타르 연구기금(카)	- 양국 연구자간 교류 확대 및 공동연구 등 추진
과학기술단지 운영협력 LOI	한국특구재단(한) 과학기술단지(카)	- 대덕특구로 대표되는 한국형 과학단지 모델 수출 본격화
KOTRA-GOIC 간 GCC 및 카타르 진출 기반구축 지원	KOTRA(한) 걸프산업화자문기구(카)	- 카타르 진출 희망 한국기업 대상 산업 컨설팅 플랫폼 제공
KOTRA-QDB 간 GCC 및 카타르 진출 기반구축 지원	KOTRA(한) 카타르 개발은행(카)	- 카타르 진출 한국 기업에 금융서비스 및 솔루션 제공
우리은행 카타르 진출 협력	우리은행(한) 카타르 이슬람은행(카)	

주: 정상회담을 계기로 비경제분야에 외교연수원간 협력, 관광협력, 교육협력과 같은 3건의 MOU 체결 예정

자료: 외교부(2015), 「한-카타르 외교관 연수기관 협력 MOU 체결」, 보도자료, (3월 8일); 문화체육관광부(2015), 「유커 못지않은 중동의 큰손, 카타르 관광객 모셔라」, 보도자료, (3월 9일); 교육부(2015), 「교육부, 한-카타르 교육협력 양해각서 체결」, 보도자료, (3월 8일); 청와대, 「대통령, 한-카타르 비즈니스 포럼 참석」, http://www1.president.go.kr/news/newsList.php?srh%5Bview_mode%5D=detail&srh%5Bseq%5D=9803(검색일: 2015. 3. 10).

3. 국가별 정치·외교적 성과

가. 쿠웨이트

■ (영사) 한국과 쿠웨이트는 인적교류를 확대하고자 양국 국민의 입국 및 체류 시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편의를 증진시키는 영사 관련 조치에 합의하였음.

- 쿠웨이트 입국에 필요한 도착 사증(90일 체류 가능) 발급 수수료(11달러)를 면제하여 경비절감뿐만 아니라 사증 발급을 위한 환전 및 대기 시간 등의 불편도 해소될 것으로 보임.
- 쿠웨이트 국민의 무사증 입국 허가기간도 기존 30일에서 90일로 연장하기로 합의하였음.

19) KOTRA(2015), 「중동순방 경제사절단 ‘성과 풍성」, 보도자료, (3월 9일)

■ (글로벌 이슈 협력) 양국은 한반도와 중동의 평화 및 안정 등 글로벌 이슈에 대한 협력방안을 논의하였음.

- 우리나라는 걸프 지역 유일의 북한 대사관 상주국인 쿠웨이트에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통일 기반 구축에 관한 한국의 입장을 지지하고 건설적 역할을 수행해줄 것을 요청하였음.
- 쿠웨이트는 자국에서 개최되는 제3차 시리아 공여국 회의에 한국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원을 요청하였으며, 이에 우리나라는 회의 참석뿐만 아니라 2014년의 500만 달러를 상회하는 경제적 지원을 제공할 예정임.
- o 우리나라는 독일, UAE와 더불어 시리아국민우방국회의 산하 경제재건 작업반(Working Group on Economic Recovery and Development) 공동의장국으로, 2013년 12월 서울에서 제3차 시리아 경제재건 작업반 회의를 개최한 바 있음.

나. 사우디아라비아

■ (정상간 신뢰 구축) 이번 순방은 우리나라가 살만 국왕 취임 후 비중동국가 중 첫 번째로 방문한 국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며, '라피크(동반자)'로서의 관계 형성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였음.

- 살만 국왕과의 정상회담 이후에 무크린 빈 압둘아지즈 알사우드 왕세제, 무함마드 빈 나이프 빈 압둘아지즈 알사우드 제2 왕위계승자에 대한 접견으로 살만 국왕 이후의 주요 인사들과도 우호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계기를 마련하였음.

■ (안보 협력 공감대 형성) 양국 정상은 경제협력 관계의 공고화를 넘어 한반도 및 중동 지역의 안보문제와 국제문제에 대한 협력의 필요성을 확인하였음.

- 한·사우디 양자간 협력과 함께 GCC(Gulf Cooperation Council)와 같은 역내 공동체와의 협력을 통해 한반도 및 중동 지역의 안보문제 해결에 대한 필요성도 확인하였음.

다. UAE

■ (전략적 동반자 관계) UAE는 한국이 중동에서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은 유일한 국가임.

- 2009년 12월 한국전력 컨소시엄이 국내 해외건설 사상 최대 규모인 바라카 원자력 발전소 사업을 수주한 것을 계기로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형성하였음.
- 또한 UAE는 박근혜 대통령 취임 이후 중동국가 중 처음으로 순방한 국가이자, 미국·중국과 더불어 취임 이래 두 번 방문한 국가임.
- UAE는 북한의 추가 도발을 억지하기 위해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등 국제사회의 공조에 지속적으로 동참한 바 있음.

■ (국방 협력) 양국은 긴밀한 국방협력을 토대로 정보보안 및 방산 분야 공동 개발·투자, 기술협력 등 호혜적 협력을 확대하고자 함.

- 한국은 UAE군 특수전부대의 교육훈련체계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2011년 군사협력단 아크(Akh, 형제)부대를 파병하였으며, 세계 평화 및 인도적 차원의 대해적작전과 군사협력을 위해 소말리아 해역에 청해부대를 파병하였음.
- 향후 양국은 국경을 초월하는 사이버 테러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사이버 보안 분야 협력을 확대할 것으로 예상됨.
- UAE가 원전, 유전, 통신 인프라 등 국가 기간시설에 대한 사이버 테러 대응 능력을 제고하고자 하는 상황에서 원전 수출 국가인 한국이 원전을 비롯한 핵심 시설의 사이버 보안을 강화하는 데 협력할 필요가 있음.

라. 카타르

■ (지역기구 통한 협력 강화) 우리나라는 카타르가 2015년 GCC의 의장국인 점을 감안하여 카타르뿐만 아니라 다른 GCC 국가들과의 우호 관계를 증진하여 주요 국제문제에 공동으로 대응할 것임을 밝힘.

■ (대북정책에 대한 지지 확인) 타밈 국왕은 우리나라의 대북정책 기조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며 향후 한반도 문제에 대한 협력 의지를 밝혔음.

- 타밈 국왕은 2014년 방한 중 이루어진 양국 정상회담을 통해서도 북핵 및 통일 문제에 대해 논의한 바 있음.

4. 향후 과제

가. 후속조치의 내실화

■ (로드맵 작성) 이번 중동 정상외교를 통해 체결한 각종 MOU가 실질적인 계약 단계로 이행될 수 있도록 면밀한 시간 계획과 실행방안이 수립되어야 함.

- MOU에서 본계약단계로 이행되기까지의 로드맵을 마련하고, 로드맵의 이행 방식 및 속도, 각 부처간 이해관계의 조정 등을 담당하는 협의체를 통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이루어져야 함.
- 또한 중동 국가들과의 경제협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서는 이번 정상외교에서의 MOU 이외에도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새로운 협력 의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해야 하므로 이를 총괄할 수 있는 부서가 필요함.

■ (인적 교류 활성화) 산업 협력의 분야가 보건의료, IT, 방산, 농업, 할랄식품 등으로 확대된 만큼 인적교류의 폭도 넓어져야 함.

- 주요 의사결정 담당자뿐만 아니라 실무 단계의 전문인력 교류를 통해 양국 현실에 대한 상호 이해를 제고하고 보다 구체적인 협력 의제를 발굴해야 함.
- 또한 각 부문별 학생 및 청년 교류를 확대함으로써 차세대 경제협력을 위한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중장기적 접근 방식이 필요함.

■ (중동지역 연구 강화) 중동 산유국과의 지속적인 경제협력은 당해 국가들의 정치와 경제, 사회와 문화에 대한 이해가 밑받침되어야 하므로 이에 대한 연구 인프라 및 인력이 확충되어야 함.

- 특히 최근 시리아 및 리비아의 내전 상황이나 시리아, 이라크 지역의 일부를 점령하고 있는 ISIL의 테러 위협 등은 국내 기업의 중동 진출을 어렵게 만드는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이에 대한 충분한 동향 파악 및 정보 수집과 체계적인 분석이 필요함.
- 이를 위해서는 국내외 다양한 중동 관련 연구기관간 교류를 활성화하여 중동 연구 플랫폼을 구축하고 지속적인 연구인력 양성이 필요함.

나. 투자협력의 강화

■ (투자협력의 중요성 인식) 한·중동 간 투자협력은 단순 교역보다 더 많은 부가가치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기 때문에 경제적 파급효과가 더 클 것으로 기대됨.

- 투자협력은 금융, 기술 및 법률 자문 등 고부가가치 서비스업이 뒷받침되어야 하므로 투자협력 활성화를 통해 서비스업의 선진화에 기여할 수 있음.
- 해외건설 부문에서도 EPC(Engineering, Procurement, Construction) 계약업체 단계에서 더 나아가 지분 투자와 건설 후 운영 및 관리 부문도 책임지는 디벨로퍼(Developer) 단계로의 발전이 이루어져야 함.

■ (중소기업 활용) 중동 산유국은 자국의 민간 부문 확대를 위해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을 강화하고 있으므로, 기술력 있는 국내 중소기업에 대한 한·중동 간 공동투자를 통해 투자협력을 강화할 수 있음.

-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더 크다는 점을 감안하면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는 일자리 창출 정책과도 연계되어 실행될 수 있음.
- 사우디아라비아에 창조경제 혁신센터가 설립되면, 우리나라의 창조경제 혁신센터와 연계하여 중소기업 진출을 위한 플랫폼으로 활용할 수 있음.

■ (국부 펀드 활용) 중동 국부 펀드가 최근 역내 투자나 주변 아랍국으로의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는 점을 활용하여 한·중동 간 공동투자 펀드를 조성하여 적극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음.

- 이번 중동 순방 기간중에 체결된 BOPP 필름 합작공장 설립 MOU는 우리나라 정책금융기관과 GCC 국부펀드가 공동으로 조성한 한국·GCC 경제협력펀드(KGF: Korea-GCC Cooperation Fund)의 투자 가능성을 열어 주는 사례임.

다. 이슬람 국가들과의 다자간 네트워크 구축

■ 이번 중동 정상외교는 양자간 협력관계에 초점을 맞추었으나 향후 우리나라와 이슬람 국가들 간의 다자간 네트워크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 걸프협력기구(Gulf Cooperation Council), 이슬람 협력기구(Organization of Islamic Cooperation), 이슬람 개발은행(Islamic Development Bank) 등 이슬람 국가들의 이해관계를 반영하는 다양한 다자간 기구들과의 협력 관계를 모색해나가야 함.
- 이는 이슬람 국가들의 경제개발 동향을 파악하고 국내 기업의 진출 기회를 확보할 수 있는 경로로 활용할 수 있음.
- 뿐만 아니라 현지 교민 및 주재원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들을 사전에 파악하고 유사 시 공동 대처할 수 있는 안보협력 채널로도 활용할 수 있음. **KIEP**